

이희균 '등번호 10번의 무게' 이기고 더 높이 간다



광주FC의 이희균이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캠프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개인 최다 34경기 2골 1도움...2019년 입단 '유스 최초' 100경기 광주FC 부주장 맡아...“팀의 중심 잘 잡고 성장하는 한해 만들 것”

이희균이 '10번의 무게'를 지고 광주FC의 우승 도전에 나선다.

올 시즌 광주 10번은 이희균의 차지다. 2019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한 '유스출신' 이희균은 지난 시즌 입단 후 가장 많은 34경기를 뛰었다. 2골 1도움을 기록한 그는 광주 첫 '유스 출신 원클럽맨 100경기'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팀은 3위라는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이희균은 최고의 2023시즌을 보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이희균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는 '베테랑' 이민기와 함께 '주장' 안영규를 도와 부주장 역할을 맡았다.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내건 광주, 올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데뷔까지 앞둔 만큼 주장단으로 이희균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리고 올 시즌 그의 등에는 '10'이라는 번호가 새겨졌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번호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 만큼 이희균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게 됐다.

시작부터 특별한 시즌을 앞둔 이희균은 "기대가 되지만 예전에 힘든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잘되면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잘될 때 일수록 내면에서 불안감이 온다.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부담도 되고, 더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마음이 많다"며 "2023시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팀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더 성장하려면 이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다. 욕심도 있고, 그것에 대해 부담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깨는 무겁지만 이희균은 이 부담감을 '성숙'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각오다.

이희균은 "목표는 매년 잡고 있는데 일관성을 제

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록 없이 해야 한다.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좋지 않다는 말 나오지 않게 잘 준비하고 있다"며 "골도 그렇고 공격포인트 더 많이 기록하고, 경기 수도 작년보다 더 뛰고 싶다. 이번 시즌에는 풀경기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도가 더 높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감독은 그라운드 안팎으로 이희균의 헌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팀 내 가장 많은 '98년생' 선수들을 대표해 이희균에게 부주장 역할을 맡겼다.

이희균은 "감독님이 부주장을 맡겨주셨는데 나 이도 27살 됐고, 제가 팀에 해줬으면 하는 게 많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성장, 성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어렵지만 잘해보도록 영규형 잘 따라가겠다"며 "27살이면 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후배들 잘 맞춰주고 선배들 잘 받쳐주고 해야 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경기장에서든 밖에서도 '98'가 모범이 돼서 3위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10번에 어울리는 활약도 예고했다.

"10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학생 때부터 10번이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웃은 이희균은 "광주FC는 역사적으로 봐도 7번이 더 무게가 크다. 10번은 외국인 선수에게 많이 부여했던 번호인데 외부적인 느낌으로 즐기려고 하겠다. 당연히 작년보다 더 잘해야 한다. 부담 가지고 잘해보겠다. 안주하지 않고 잘 뛰고 건방 떨지 않고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다'는 말 잊지 말고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우진 국토정중앙배 우승 백우현 5단 꺾고 2연패

한우진(18) 9단이 양구군 국토정중앙배 밀레니엄 천원전 2연패를 달성했다.

한우진은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수목원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백우현(23) 5단에게 17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난전이 이어지던 중반에 백현우가 실책을 범했고, 한우진은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한우진은 "작년에도 천원전 우승을 시작으로 성적이 좋아졌는데 이 대회를 통해 올해도 비상하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출범한 이 대회는 2000년 이후 태어난 프로기사들이 출전하는 제한 기전이다.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양구군과 양구군 스포츠재단이 후원한다. 우승 상금은 1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4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20초씩 주어진다.

/연합뉴스

70억 먹튀 '뻔뻔스만' ... 1년도 못채우고 경질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전술적 무능력·무책임 등 보여

우려 속에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경질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임원 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로 하고 이를 통보했다.

지난해 2월 27일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부터 대표팀은 불안한 시선을 받았다.

독일 출신으로 현역 시절 세계적인 스타 골잡이였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도자로 변신한 뒤로는 호평보다는 혹평을 훨씬 많이 받았다.

2004~2006년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 자국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에서 3위를 달성하며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이게 그의 지도자 경력의 정점이었다.

2011년 미국 대표팀을 맡아 2013년 북중미 골드컵 우승,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등 성과를 냈으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으로 경질됐다.

프로 무대에서의 경력은 딱히 내세울 것도 없었다. 2008년 7월 독일의 '질대 1강'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을 잡았으나 부진으로 9개월 만에 떠나야 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 정규리그 2위 등 뉘른베르크에서는 골육적이다 할 만한 성적을 냈다.

전술적으로 무능하고 지도력, 경기 중 대응 능력도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2019년 11월 독일 헤르타 베를린을 맡고서 단 10주 만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4년도 제 1차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에 개인 소셜 미디어로 사임 발표를 하고 '야만도 주'를 하는 기행을 벌이면서 '무책임하다'는 평가까지 듣게 됐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런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서 5경기(3무 2패) 무승을 기록했다. 축구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 취임 후 5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한 사령탑은 클린스만 감독이 최조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전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했지만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 약체

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다.

클린스만호는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졸전을 거듭하다가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충격 패하고 탈락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어서 선수 심리 장악에 능하다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 그나마 받은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아마저도 무색해졌다.

클린스만호의 '황태자'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요르단전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른바 '탁구게이트'가 타진 것이다.

무책임하다는 세간의 평가도 틀린 게 아니었다.

지난 15일 열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그는 아시안컵 부진의 이유로 '선수 간 불화'를 대며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또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면서 계약 해지에 따라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억원에 육박한다고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클린스만 사단의 코치진에게 줘야 할 돈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온다.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의 첫 인연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였다.

한국은 이 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독일에 2-3으로 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차원이 다른 결정력으로 전반전에만 2골을 폭발하며 한국에 패배를 안겼다.

결국 한국과 클린스만 감독의 인연은 악연으로 시작해 악연으로 끝났다.

/연합뉴스

'손흥민 vs 황희찬' 코리안더비, 울버햄프턴 승

EPL서 도트넘 2-1로 제압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과 황희찬이 맞대결에서 나란히 공격포인트 없이 침묵한 가운데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토트넘 홋스퍼(이상 잉글랜드)를 또 한 번 제압했다.

울버햄프턴은 18일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을 2-1로 꺾었다.

이 경기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전방을 책임지는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다.

이날 막을 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 탈락한 뒤 곧장 소속팀으로 복귀한 이들은 나란히 득점포 재가동을 보였다.

특히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요르단전 전날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으로 꼽혀 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대표팀 팀워크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터라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을 끌었다.

이른바 '탁구게이트' 탓에 손가락을 다친 손흥민은 이날 오른손 검지, 중지 쪽에 테이핑을 한 채 그라운드를 내렸고 왼 측면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포인트는 쌓지 못했다.

울버햄프턴의 최다 득점자로, 마테우스 쿠냐가 부상으로 이탈한 팀의 전방을 책임지게 된 황희찬 역시 침묵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88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이렇다 할 득점 기회는 잡지 못했다.

올 시즌 EPL에서 손흥민은 12골(6도움)로 5위, 황희찬은 10골(3도움)로 8위에 오르는 등 득점 레이스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한국인 공격수들이 침묵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웃은 쪽은 울버햄프턴이었다. 지난 12라운드 맞대결에서 2-1로 이긴 울버햄프턴은 이날도 같은 스코어로 승점 3을 따냈다.

주장 고메스가 멀티골로 울버햄프턴 승리의 선봉에 섰다. 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먼저 토트넘의 골망을 흔든 고메스는 후반 18분에도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한편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선 이강인이 논란을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출격해 61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18일 열린 2023-2024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 낭트를 2-0으로 꺾었다.

르파리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시안컵 후 PSG에 복귀한 이강인은 바이러스 감염 탓에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해 코칭스태프가 휴식을 주기로 결정했다.

휴식 후 이강인은 복귀전인 이날 낭트전에서는 키 패스 2회를 기록하고, 9개 크로스를 배달하는 등 나름대로 제 몫을 해냈다. 전반 18분에는 오른 측면에서 공을 받은 후 특유의 속인 동작으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PSG는 후반 15분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슈팅이 수비수에 맞고 골절된 게 낭트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어렵게 선제골을 넣었다.

움바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 후반 33분 직접 키커로 나서 추가 골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헝가
2관	헝가
3관	건국전쟁, 소풍
4관	시민덕희
5관	도그데이즈
6관	시민덕희,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9관	건국전쟁, 데드맨
7관 씨네클러	아기상어 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 서울의 봄
8관 씨네클러	스노우 퍼핀즈, 아가일, 장인과 사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쿠리
 일시: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3

2024년 2월 광주상설공연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2024년 광주상설공연(2월)
 일시: 2024-02-03(토) ~ 2024-02-25(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